

직업환경의학의 한계

직업환경의학은 유해인자의 관리와 그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더욱 중요하고, 선결되어야 하는 것은 문화적인 변화이다.
내가 일하는 곳에서 노동의 가치에 대한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에
소홀했던 것은 아닌가 다시 한 번 돌아보아야 할 시점이다.



직업환경의학은 유해인자의 관리와
그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관리적 유해인자는
위생학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는 제도적인 문제와 함께
시스템, 문화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송재석

가톨릭관동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교수

에피소드 1.

작년에 일본에 일이 있어서 갔다. 일본 산업의과대학에 갔는데, 당시 일본에서는 초과근로에 대해서 이슈가 집중되어 있던 시기였다. 산업의과대학의 교수와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그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일본에서는 초과근무를 하는 모든 노동자들은 산업의에게 상담을 받도록 법적으로 규정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필자는 그 순간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초과근무로 인한 건강 문제가 의사와의 상담으로 해결되는 문제인가? 그 질문을 산업의과대학의 교수한테 하자, 그 교수도 조금은 씩씩한 표정으로 인정을 하더니, 만약에 과로사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담을 한 기록이 있으면 사업주가 법적 공방에서 이득이 된다고 하는 말을 전했다. 그리고 필자는 이제 일본의 산업보건은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다.

제언

직업환경의학의
본질은 직업병을
진단, 치료하기에 앞서
유해인자를
최소화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에피소드 2.

최근 들어서 우정청(우체국) 노동자들의 과로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그러자 우정청에서 내놓은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보건 관리를 강화 하자는 것이었다.

보건 관리를 나가면 그 우체국에 있는 모든 직원을 상담할 수 있도록 관리자 에게 감독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매달 상담건수를 보고하도록 하였다. 26세 집배원들의 혈압, 혈당을 재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도대체 뭐 하자는 것인가. 일이 많고, 그로 인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사람을 더 채용해서 업무를 줄이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이 아 닌가. 직업환경의학이라고 하는 전문 과목의 본질은 직업병을 진단, 치료하는 것에 앞서서 유해인자를 최소화하고 관리하는 것이 더 일차적인 중요성을 가진 다. 과거 우리는 중금속이나 유기용제 등의 유해인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 을 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 그러나 이러한 고전적인 유해인자로 인한 질병부담 은 이 사회에서는 제도적인 문제, 즉 과로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것들이 오히 려 더 크지 않을까? 이 문제는 위생학적 관리로 해결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필자는 희생, 봉사 등의 말도 싫어하지만, 경영효율화라고 하는 말 역시 싫어 한다. 물론, 경영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반박할 수도 있 겠지만, 경영효율화라고 하는 것은 자본(사업주가 아닌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창출하는 이익을 최대한 착취하는 기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처럼 자본주의, 그것도 천민자본주의가 극대화한 나라 에서 인간적인 노동이 가능할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사람은 노동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이룬다고 배웠다.

그러나 필자는 노동은 자본주의 하에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한 수단인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노동은 인간을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 아니, 발 전된 사회에서는 그 모든 것의 가치 평가는 자본주의적인 가치 지표로 이루어지 지 인간의 행복은 중요하지 않다.

또한, 사회적인 합의와 제도의 개선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전에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공감성이라는 것이 있다. 아무리 민주주의가 중요하 고, 민주주의적 시스템 확립을 위해서 많은 시위를 하고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지만, 지금 우리 역시 우리가 일하는 일자리에서는 효율화, 희생, 봉사 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닐까? 물론 효율화라고 하는 것을 무조건 나쁘게 매도할 수는 없다. 그러나 경영효율화에 항상 달라붙는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된 경우를 본 적은 없는 것 같다.

필자가 일하는 학교에서 얼마 전 황당한 경험을 했다. 올해부터 보직교수를 맡게 됐는데, 퇴근을 하다가 뭔가 두고 온 게 생각이 나서 다시 사무실로 들어가는 도중에 우르르 퇴근하는 직원들을 만났다. 그들은 나의 퇴근을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나라의 생산성이 OECD 국가들 중에서 낮은 편에 속하는 이유는 뭘까? 물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분모에 포함되는 노동의 input, 즉 노동시간이 너무 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것도 전혀 쓸모없는 상관 퇴근 기다리기.

직업환경의학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유해인자의 관리와 그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다시 한 번 언급하지만, 관리적 유해인자는 위생학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는 제도적인 문제와 함께 시스템, 문화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본질적인 이유로 인해서, 직업환경의학 전문가들은 사회적인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정치적인 관심이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더욱 중요하고, 선결되어야 하는 것은 문화적인 변화이다. 내가 일하는 곳에서 노동의 가치에 대한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에 소홀했던 것은 아닌가 다시 한 번 돌아보아야 할 시점이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 하겠는가.

이제는 퇴근시간 넘어서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빌딩 사무실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발전해가고 있다고 흐뭇해할 시기는 아니지 않는가. 🍷

우리나라의 생산성이
OECD 국가들 중에서
낮은 편에 속하는
이유는 뭘까?
노동시간이 너무
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